

## 광야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

호세아 2:14-16

호세아 말씀은 타락한 아내 고멜과 그를 끝까지 품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광야 한 복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 14절,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고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시기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으며, 그때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 15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갈 골짜기는 어떤 곳이며 (여호수아 7장 참고),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만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삶과 오늘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3. 16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과 내 바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은 ‘주님’이라 써 놓고 ‘바알’이라 읽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삶에서 바알에게 빼앗겨 버린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4. 코로나사태를 지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메마른 광야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평탄한 길을 걸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곳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이 광야 길에 설 것인지 다짐을 나누고 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주일 설교에서 강조한 말씀

- 막막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세상 모든 소리 사라질 때 비로소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천국도 지옥과 같다.